

어린이 3명중 1명 낙상 등으로 입원

최근 5년간 다쳐서 입원한 14세 이하 어린이 3명중 1명 이상은 낙상이나 추락사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본부의 2011~2015년 병상 100개 이상 170개 병원 입원 환자조사 결과 신체 손상으로 입원한 14세 이하 환자 1만379명 중 36.5%인 3788명이 낙상 및 추락사고로 부상당했다.

이 같은 사고 5분의 1은 초여름 발생했다. 낙상 및 추락사고 비율은 5월과 6월이 10.6%씩 발생해 가장 높았고 10월 9.5%, 9월 9.4%, 4월 9.3% 순이었다. 반대로 2월(5.0%)과 1월(5.9%), 12월(6.9%) 등은 사고가 비교적 적었다.

사고후 많이 다치는 부위는 0~4세는 외상성뇌손상(42.5%)이, 5~9

질병관리본부, 전체 부상입원 사유의 36.5%
낙상·추락사고 5건중 1건 5~6월...남>여 2배 ↑
0~4세 외상성뇌손상, 5~9세 어깨·위팔 다쳐

세는 어깨·위팔(34.4%), 10~14세는 무릎·아래다리(24.7%) 등이었다.

입원한 14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는 남자가 2557명(67.5%)으로 여자(1229명, 32.5%)보다 2.1배 많았다.

이와 별개로 2011~2016년 6년간 23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에서 14세 이하 어린이의 낙상 및 추락사고 16만7000여건을 분석해 보니 사고는 주로 집에서 발생했다. 0~4세 연령은 주거지 발생

방수칙을 안내했다. 야외 활동시 장신구·복잡이를 하지 않은 채 간편한 옷을 입고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 놀이터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그네와 미끄럼틀,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자녀들이 놀이터 등에서 놀때 놀이터 바닥이 안전하지, 망가지거나 부서진 놀이기구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수칙을 알아두었다가 야외 가족나들이 때나 자녀를 현장학습에 보낼 때 지도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지도 미리 챙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중 유통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 다량 검출

중국내 유통되는 소금에서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홍콩 언론 링귀르비오는 중국 화둥(華東)사범대학 연구진이 2015년 중국 내 15개 소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보도했다.

연구진은 해염(海鹽·천일염)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가장 높아 1kg 당 미세 플라스틱이 550~681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만약 한 사람이 매일 5g의 해염을 섭취할 경우 매년 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크기가 5mm에서 작게는 수십 나노미터(nm·10억 분의 1m)에 불과해 사람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고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기가 많은 호수의 물을 정제해 만든 소금인 호염(湖鹽)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은 1kg당 43~364개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천연으로 나는 염화나트륨의 결정인 암염(巖鹽)과 염분 농도가 진한 지하수에서 얻은 소금인 정염(井鹽)의 미세 플라스틱 함량은 1kg당 7~204개였다.

연구진은 소금에 함유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페트(PET)병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 불임치료 받던 30대女 사망...3명 불구속기소

일본에서 한 30대 여성이 불임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한 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담당의사 및 병원장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3일 NHK 및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은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같은 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 위치한 '센터마더'라는 이름의 산부인과 의원을 찾았다.

당시 이 여성은 남편과의 막힌 여부를 살피는 유착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중 몸상태가 악화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다음날 사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의사 등은 해당 여성의 남편과 유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기체를 불어넣는 검사를 실시했다.

담당의사는 해당 여성의 복부에 낸 작은 구멍(절개창)을 통해 비디오 카메라 및 각종 기구를 삽입하는 복강경 수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의료진은 여성을 시내 다른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한달 만인 2016년 12월 해당 여성은 폐색전증을 일으키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수술 당시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불어넣으려던 기체를 실수로 혈관에 유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것이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담당의사가 해당 수술 경험이 부족한 데다, 수술 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23일 담당의사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美음식점서 알몸 괴한 총격 후 도주...4명 사망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음식점에서 알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BC뉴스, WSMV TV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3시30분께 테네시 주 인터오크의 '와플 하우스'에서 남성 하나가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용의자는 짧은 머리 모양을 한 백인 남성이다. 목격자들은 녹색 재킷 하나만 걸친 총격범이 주차장과 식당 안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식당 손님 중 하나가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여 범행에 쓰인 AR-15 소총을 빼앗았다. 범인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던진 채 알몸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용의자를 일리노이주 출신의 트래비스 레인킹(29)로 특정하고 수색을 진행 중이다.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인지는 불분명하다.

AR-15 소총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종종 사용된 기종이다.

지난 2월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 소총을 사용했다.

일제 강제노역 생존 여성 187명...광주·전남 31명

대부분 고령...정부 관심 필요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현재 광주 12명, 전남 19명 등 총 31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여성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187명이다.

경남이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24명, 경기 23명, 부산 22명, 전남 19명, 전북 14명, 경북 13명, 광주 12명, 대전 9명, 인천 7명, 강원·충북 5명, 대구·충남 4명, 울산 1명이다.

의료지원금 지급자는 전국적으로 5245명이지만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1만7148명에서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 3854명, 2014년 1만1717명으로 줄었다.

또 2015년에는 9937명으로 1만 명 선 아래로 감소했으며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올해 2월 기준 5245명으로 현재까지 줄어들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14세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은 어느덧 연세가 90세에 이르르고 있으며 군인이나 노무자로 남성의 경우 이미 90대 중반을 넘어 대부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어난개울에서 물고기 사냥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3일 오후 물이 불어난 세종시 연서면 교북리 개울에서 한 어르신이 족대를 이용해 거센 물살을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고 있다.

사회복지사 3급 폐지...법인·시설 공공성 한층 강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내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을 고려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올해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사회복지사 경력사유에 정신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격 취득 및 유지를 가능토록 했다.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토록 해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한층 강화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선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해야 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 사유까지 추가했다.

기본이념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뒤 국가 등의 책임도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도 전달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